『三國遺事』의 鄕歌와 『均如傳』 鄕歌의 文法 比較

南豊鉉

要約

『三國遺事』의 鄕歌는 中古韓國語의 資料이고 『均如傳』의 鄕歌는 近古韓國語의 資料이다. 前者는 慶州地域에서 쓰여 졌고 後者는 中部地域 출신에 의하여 쓰여 졌다. 이 두 文獻의 鄕歌는 이러한 時代的·方言的 差異를 실제로 보여 주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 왔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문점에 유의하면서 두 문헌의 향가에 나타나는 文法 形態를 추출하여 서로 對照·比較하였다. 助詞, 語尾, 補助語幹, 接尾辭, 助動詞, 準文法 形態, 否定法 등으로 분류하고 그 하위 단위에 따라 각 형태 들을 機能別로 分類하여 그 例文을 들어 설명하고 대조하였다. 이로써 향가의 문법은 새롭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문헌의 量은 매우 빈약하여 시대적·방언적인 차이를 보여 주는 문법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다만 每個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每如/마다'와 겸양법의 '白/숣'은 균여전 향가에만 나타나 이들은 근고어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轉換의 接續語尾 '如可/다가'는 處容歌에 나타나는데 이는 中世韓國語의 文法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 삼국유사와 균여전에서 '支/디'가 '友'자로 誤刻되었는데 이는 이들 문헌이 板刻될 무렵에는 如實法의 '支/디'가 그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핵심어: 時代的·方言的 差異, 文法 形態의 機能別 分類·對照, 每如/마다, 白/숣, 如可/다가, '支/디'의 誤刻.

1. 序言

『三國遺事』의 鄕歌는 中古韓國語를 나타내는 자료이고『均如傳』의 鄕歌는 近古韓國語를 나타내는 자료이다.[1] 그러나 삼국유사가 편찬된 시기가 1280년대이므로 여기에 실린 향가가 과연 신라시대의 모습 그대로인가가 의문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處容歌와 薯童謠를 제외하면 신라시대의 향가라고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처용가와 서동요는 민요를 채취한 것이고 그 언어적인 면에서도 다른 향가들에 비하여 후대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이므로 균여향가에 넣어 다룬다.

유사의 향가가 新羅時代의 言語 즉 中古語를 반영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의 언어를 반영하는가 하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신라 향가는 그 배경설화로 보면 景德王代에 지어진 것이 5수이고 聖德王과 元聖王 代에 지어진 것이 각 1수이어서 8세기에 지어진 것이 모두 7수이다. 鄕札의 表記法도 薛聰이 九經의 釋讀口訣을 지은 것을 고려하면 이 시대에는 완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사향가는 8세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더 늦추어 잡는다 하더라도 9세기 이전의 언어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均如傳의 鄕歌는 960년대에 지어져 人口에 膾炙되던 것을 赫連挺이 1075년에 균여전을 편찬하면서 기록하여 넣은 것이다.[2] 따라서 균여가 지은 그대로의 표기라고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10세기중엽에서 11세기 후반에 걸치는 언어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8, 9세기의 유사향가와 10, 11세기의 균여향가 사이에는 2세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유사향가는 慶州의 方言으로 지어졌고 균여향가는 균여대사가 黃州 출신으로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1) 『三國遺事』는 遺事/유사로 『均如傳』은 均如/균여로 표기하기로 한다.
2) 右歌(普賢十願歌)播在人口 往往書諸墻壁傳中不載歌詞 今錄付之]를 참조.

것을 고려하면 중부지방의 방언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방언적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두 문헌의 향가 사이에 이러한 時代的 差異와 方言的 差異가 있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 한 목적이다. 그러나 두 문헌의 향가는 그 量이 한 시대의 언어를 대표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한 자료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곧 언어의 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향가는 많은 사람이 해독을 하여 왔지만 아직 해독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해독한 사람마다 독특한 견해들을 펴서 의견들이 구구하지만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鄕歌의 解讀은 音韻, 文法, 語彙, 意味 그리고 당시의 社會的, 文化的, 思想的인 背景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때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해독은 이들 각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해답을 고려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뭉뚱그려서 처리하려고 한 면이 없지 않다. 그 가운데서 합리적인 해독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 업적들도 중세어의 한계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釋讀口訣 資料와 吏讀를 비롯한 借字表記 資料들이 發掘되고 解讀되면서 향가와 중세어 사이에 언어적으로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향가의 해독을 시도하면서 더욱 분명하여 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가 가운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향가가 어디까지 해석되었고 어디서부터는 해석이 되지 못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해독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앞으로 나아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향가의 문법을 논하는 것은 향가가 완벽하게 해독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독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重要한 指標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鄕歌의 文法에 대한 理解는 語節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 이 語節들에 담긴 文法的인 內容들을 추출할 수 있는 안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글은 필자가 현재까지 파악한 향가의 문법을 제시하고 두 문헌의 향가를 비교하고자 한 것이다.

필자는 앞서 '中古韓國語의 文法'을 槪觀하면서 新羅時代 吏讀의 文法과 遺事鄕歌의 文法을 대조하면서 제시한 바가 있다.(南豊鉉2011b) 이 글에서는 유사향가의 문법이 중복되는데 앞의 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그러나 중복되는 내용이 많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遺事에는 다음과 같이 鄕歌 14 수가 전한다.

1) 慕竹旨郎歌〈죽지랑〉
2) 獻花歌〈헌화〉
3) 安民歌〈안민〉
4) 讚耆婆郎歌〈기파랑〉
5) 處容歌〈처용〉
6) 薯童謠〈서동〉
7) 禱千手觀音歌〈도천수〉
8) 風謠〈풍요〉
9) 願往生歌〈원왕생〉
10) 兜率歌〈도솔〉
11) 祭亡妹歌〈제망매〉
12) 彗星歌〈혜성〉
13) 怨歌〈원가〉
14) 遇賊歌〈우적〉

※ 〈 〉 속은 略號임. 이하 같음.

5) 處容歌, 6) 薯童謠는 그 표기법이나 문법으로 보아 13세기 후반에서 멀지 않은 시기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8) 風謠도 신라 향가로서의 특징을 보여 주지 않아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들은 近古語 資料로 보아 균여향가에 넣어 다루기로 한다.

均如傳의 普賢十願歌 11 수는 다음과 같다.

1) 禮敬諸佛歌〈예경〉
2) 稱讚如來歌〈칭찬〉
3) 廣修供養歌〈광수〉
4) 懺悔業障歌〈참회〉
5) 隨喜功德歌〈수희〉
6) 請轉法輪歌〈청전〉
7) 請佛住世歌〈청불〉
8) 常隨佛學歌〈상수〉
9) 恒順衆生歌〈항순〉
10) 普皆廻向歌〈회향〉
11) 總結无盡歌〈총결〉

2. 文法形態와 그 機能

釋讀口訣 資料와 吏讀 資料가 해독되면서 鄕歌의 文法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 져 향가의 문법단위의 분석도 새로워져야 할 것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해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좀 더 고구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이러한 약점을 안은 채 그 文法이 記述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다음에 文法形態를 機能別로 分類하여 제시하고 설명하기로 한다. 유사향가의 형태를 앞에 놓고 설명하고 균여향가의 형태를 뒤에 놓고 설명하여 비교하기 쉽게 하고자 한다.

2.1. 助詞

2.1.1. 格助詞:

	〈遺事 鄕歌〉	〈均如 鄕歌〉
主格;	是/이, 知/디	伊/이, 익(弋)
屬格; 有情物:	矣/의, 未/믜	衣/의, 未/믜[3]

3) 차자표기에선 母音調和를 보여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助詞나 語尾는 같

	無情物:	叱/ㅅ	叱/ㅅ
對格;		肹/ㄹ	乙/을, 肹/을
處格;	良系列:	良/아, 乃/ㄴ·아	良/아
	衣系列:	衣/의, 矣/의, 希/희, 中/긔	衣/의, 矣/의, 希/희,
		未/ㅁ·의, 米/ㅁ·의	中/긔
	良+衣	惡希/아의, 良中/아긔,	良衣/아의, 阿希/아의,
		也中/야긔	惡中/아긔
造格;		以/로	留/로, 乙留/ㄹ로
列擧;		也/야……耶/야, 也/야	
呼格;	平稱:	良/아, 也/야	良/아, 也/야
	詠嘆:	也/야	亦/여
	尊稱:	下/하	下/하
複合格;		之叱/읫, 阿叱/앗	阿叱/앗, 惡之叱/아읫,
			留叱/롯

〈遺事 鄕歌〉 주격조사로는 是가 쓰였다. ‘雪是〈기파랑〉’. 의존명사 ‘ᄃᆞ’와 조사 ‘이’가 결합되어 축약된 知도 있다. ‘爲賜尸 知〈안민〉’. 유정물 체언의 속격조사는 矣가 쓰였는데 체언의 말음 ‘ㅁ’과 결합되어 축약된 未도 쓰였다. ‘心未 際叱〈기파랑〉’. 무정물과 존자의 속격조사로는 叱/ㅅ이 쓰였다. ‘蓬次叱 巷中〈죽지랑〉’, ‘觀音叱 前良中〈도천수〉’. 대격조사로는 肹이 쓰였다. ‘花肹〈헌화〉’. 이 조사의 어두음 ‘ㅎ’은 처격조사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실제 발음된 것인지 그 성격을 알 수 없다. 이 肹은 유사향가 표기에 자주 쓰였는데 균여향가에는 한 예만 나타나므로 신라시대 향가의 특징이라고 할 만하다. ‘吾肹〈헌화〉’, ‘際叱肹〈기파랑〉’. 처격조사에는 ‘아’계열과 ‘의’계열이 있으나 그 기능의 차이는 미상이다. ‘枝良 出古〈제망매〉’, ‘無量壽佛 前乃〈원왕생〉’. ‘史伊衣〈죽

은 차자를 양모음과 음모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 구별을 하지 않고 차자의 전통한자음이나 訓에 따라 어느 하나로 표시하기로 한다.

지랑〉', '此矣 有阿米〈제망매〉', '邊希〈헌화〉', '巷中〈죽지랑〉', '早隱 風未〈제망매〉', '心米〈우적〉'. 良와 中가 중첩된 良中, 惡希가 있다. '觀音叱 前良中〈전출〉', '磧惡希〈기파랑〉'. 체언의 말음이 '이'인 경우에는 也 中가 쓰였다. '汀理也中〈기파랑〉'. 良와 衣希는 여격으로도 쓰였다. '吾良 遣知支〈도천수〉', '尊衣希 仰支(원왕생)'. 日本의 東大寺圖書館 소장의 華嚴經은 8세기 중엽의 석독구결을 보여 주는데 良자만으로 쓰인 처격형태가 여럿 확인되었다. 향가에서는 조격조사 '以'의 예가 하나 있다. '哭屋尸以 憂音〈죽지랑〉'. 以자는 음가자로 '이'음의 표기에 쓰인 예도 있다. 열거격의 조사는 也…耶가 쓰였다. 也와 耶는 음이 같은 차자인데 '邊也 藪耶〈혜성〉'와 같이 써서 변화를 주고 있다. 호격조사는 良, 也, 下가 쓰였다. '花良 汝隱〈도솔〉', '郎也〈죽지랑〉', '慈悲也 根古〈도천수〉'. 下는 尊者에 대한 호격이다. '月下〈원왕생〉'. 東大寺圖書館의 華嚴經에서는 호격조사로 良자가 여럿 쓰였다. 복합격조사로는 처격과 속격이 복합된 '之叱; 淵之叱〈원가〉'과 '阿叱; 行尸 浪阿叱〈원가〉'이 쓰였다.

〈均如 鄕歌〉 주격조사는 '이'系列과 '익'系列이 있다. '이'계열의 표기에는 伊가 쓰여 遺事의 '是'와 차이를 보인다. '仏伊〈수희〉', '脚烏伊〈처용〉'. '익'은 '身靡只/모믹〈상수〉'에서 1번 쓰였는데 석독구결과 이 두에서도 쓰인 것이다. 균여향가에서의 '익'은 구어적인 표현에 쓰인 점이 새롭다. 이 형태는 '亦/역〉弋/익〉伊/이'의 변화를 想定하게 한다. 유정물체언의 속격조사는 유사의 '矣'에 대하여 '衣'가 쓰였다. '吾衣 身〈수희〉', '人衣 善陵〈수희〉'. '心未 筆留〈예경〉'의 '未'는 유사의 형태와 일치한다. 무정물체언의 속격조사 '叱'은 유사와 같다. '仏體叱 刹〈예경〉', '辯才叱 海等〈칭찬〉'. '衆生叱 田〈청전〉', '衆生叱 海〈보개〉'에서는 '衆生'이 존자로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 대격조사는 乙이 주로 쓰여 유사의 肹과 차이를 보인다.[4] '道乙〈참회〉', '身乙〈칭찬〉', '卯乙〈서

4) 例外的으로 '德海肹〈칭찬〉'에서 肹이 쓰인 예가 하나 있다.

동〉'. 처격조사의 '아'계열은 良이 주로 쓰였다. '此良〈예경〉', '寶良〈보개〉', 宅阿叱〈보개〉 등 주로 공간적 처소에 쓰였다. '아'와 '衣/의'가 결합될 경우에 '舌良衣〈칭찬〉', '佛會阿希〈청전〉', '一念惡中〈칭찬〉', '法界惡之叱〈청전〉'이 나타나 '阿'와 '惡'의 용례를 보여 준다. 이 형태가 中世語의 '애/에'로 발달하였다. 衣계열은 '歲史中置〈상수〉', '夜未/바믜〈청불〉', '邊衣〈총결〉', '寢矣〈처용〉'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두루 쓰였다. 조격조사는 留가 주로 쓰였는데 乙留의 예가 하나 있다. '筆留〈예경〉, 曉留〈청불〉, 舊留〈보개〉'. 이는 유사의 '以'와 표기상 대조된다. 乙留는 l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기이다. '法供乙留〈광수〉'. 호격조사로는 良, 也, 亦이 쓰였다. 良은 '朋地良〈청불〉', '群良〈청불〉'와 같이 平待에 쓰였고 也, 亦는 '南无佛也〈칭찬〉', '仏体叱 刹亦〈예경〉'와 같이 존대나 영탄적 표현에 쓰였다. 下는 '佛道 向隱 心下〈상수〉'로 나타나는데 '佛道'와 연계시켜 보면 존대 표현이다. 격조사의 복합은 '阿叱; 宅阿叱〈청전〉', '惡之叱; 法界惡之叱〈청전〉', '留叱; 伊留叱 餘音良〈총결〉' 등이 나타난다.

2.1.2. 補助詞

主題:	隱/ㄴ, 焉/ㄴ, 呑/ᄃᆞᆫ, 等/ᄃᆞᆫ, 等焉/ᄃᆞᆫ	隱/ㄴ, 焉/ㄴ, 等隱/ᄃᆞᆫ, 恨/ᄒᆞᆫ
亦是:	置/두	置/두
强勢:	沙/사	沙/사
每個;		每如/마다, 馬洛(落)/마락
均割(數量):	爾/금, 尒/금	

〈遣事 鄕歌〉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사는 隱이 주로 쓰이고 焉은 드물

게 쓰였다. 隱과 焉의 차이가 모음조화를 나타낸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의존명사 ᄃᆞ와 주제의 ㄴ이 결합된 '呑/ᄃᆞᆫ'이 쓰였다. '毛達 只將來 呑隱〈우적〉'.[5] 이 형태는 等, 等焉으로도 나타난다. '慚肹伊賜等〈헌화〉', '遣知支賜尸 等焉〈도천수〉'. 강세를 나타내는 沙는 체언에 직접 연결되는데 다른 조사에 선행하여 쓰였다. '皃史沙叱 望阿乃〈원가〉', '一等沙隱〈도천수〉'. '역시'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는 置가 쓰였다. '月置〈혜성〉'. 균할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는 爾이 쓰였다. '八切爾 數於將來尸〈혜성〉'.

〈均如 鄕歌〉 주제의 보조사는 隱이 주로 쓰이고 焉은 3 예가 쓰였다. '身萬隱〈예경〉', '灯柱隱〈광수〉', '手焉〈광수〉', '吾焉〈칭전〉', '覺樹王焉〈항순〉'. 의존명사와 결합된 等隱과 체언의 말음 h와 결합된 恨도 쓰였다. '盡尸 等隱〈총결〉', '日尸恨〈보개〉'. 주제의 보조사가 조건법의 표현에도 쓰임은 중고어와 같다. '衆生 安爲飛 等〈항순〉'. 강세의 沙는 체언과 부사어에 연결된 예가 있다. '善陵等沙〈수희〉', '入良沙〈처용〉'. '역시'의 뜻을 나타내는 置가 쓰였다. '一毛叱 德置〈칭찬〉'. 每個의 뜻을 나타내는 '每如/마다'는 석독구결에 '普遍'의 뜻을 갖는 부사로 쓰인 예가 있어서 이 기능에서 발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刹刹每如〈예경〉'. '馬洛(落)/마락'은 중세어와는 직접 맥락이 닿지 않는 형태이다. '塵塵馬洛〈예경〉', '得賜伊馬落〈수희〉'. '每如'가 근고어 자료에서 부사로 쓰인 예가 있고 균여향가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 보조사로 발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5) '毛達 只將來 呑隱'은 '모ᄃᆞᆯ 기렬 ᄃᆞᆫ'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只/기'는 '毛達'의 被否定辭이어서 동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 語尾

2.2.1. 終結語尾

平敍法1:	如/다, 多/다	如/다, 多/다
平敍法2:	齊/졔	(齊/졔)
疑問法:	古, 遣/고, 故/고, 去/가	
判定:		去/거
說明:		古/고, 焉古/언 · 고, 叱過/ㅅ · 고 · 아
修辭:		下呂, 下里/하리
命令法:	羅/라, 羅良/라아, 賜立/ᄉᆞ셔	去良/거아, 齊,制/졔, 立/셔
詠嘆法:	也/야, 邪/야, 丁/ᄃᆞ · 여	也/야, 耶/야
	下/하, 下是/하이, 多羅/다라	良羅/아라, 兮/혜
感歎法:	叱多/ㅅ다	舌/셔
引用法(確信法):	古/고	

〈遺事 鄕歌〉 평서법의 如, 多는 '如(같다)'의 뜻이 있어 '똑 같다', '틀림없다'의 뜻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愛尸 知古如〈안민〉', '吾隱去內如〈제망매〉'. 평서법2의 齊는 서정적, 또는 감동적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就支行齊〈죽지랑〉, 逐內良齊〈기파랑〉. 의문법에서 古와 去는 근고어에서 설명의문법과 판정의문법으로 구별되었지만 유사에서는 판정의문법으로만 쓰인 듯 의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좀더 고구해 볼 과제다. '去內尼叱古〈제망매〉', '去賜里遣〈원왕생〉', '有叱故〈혜성〉'[6], '成遣賜去〈원왕생〉'. 명령법에는 '羅'와 '羅良'가 쓰였

6) 이 '故'를 의문형 어미로 보는 데는 앞으로 고구해 보아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는데 그 차이는 미상이다. ‘喰惡支 治良羅〈안민〉’, ‘陪立羅良〈도솔〉’. 願望의 뜻을 나타내는 명령법에 賜立가 쓰였다. ‘白遣賜立(사뢰어 주소서)〈원왕생〉’. 영탄법에는 也와 邪가 쓰였다. ‘彗星也 白反也〈혜성〉’, ‘逸烏隱 第也〈원가〉’, ‘是史藪邪〈기파랑〉’. 丁는 여실법 의존명사 ‘ᄃᆞ’와 영탄법어미 ‘也/여’가 결합된 것이다. ‘毛冬 乎丁〈제망매〉’. 下와 下是에서 下에는 영탄법이면서 존경의 뜻이 있고 下是에는 존경과 아울러 공손의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安支下〈기파랑〉’, ‘有叱下是〈죽지랑〉’. 감탄법의 叱多에 쓰인 叱에 감탄의 기능이 있음은 중세어와 같다. ‘來叱多〈혜성〉’. 인용법의 종결어미로 해석되는 ‘古’가 있는데 후대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다. ‘民焉 狂尸恨 阿孩古 爲賜尸知…(民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시는 것이…)〈안민가〉’. 이는 확신법의 古가 문맥상 인용법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均如 鄕歌〉 平敍法1의 語尾는 中古語와 같다. ‘仏体 爲尸如〈항순〉’, ‘抱遣 去如〈서동〉’, ‘逐好支伊音叱多〈상수〉’. 의문법에서는 判定, 說明, 修辭의 의문법이 구분되어 나타난다. ‘至刀 來去〈수희〉’, ‘何如爲理古〈처용〉’, ‘有叱下呂〈수희〉’, ‘好尸卜下里〈상수〉’. 명령법에는 去良가 쓰였다. ‘至去良〈예경〉’. ‘齊, 制’는 청유법으로 쓰인 예만 여럿 나타난다. ‘礼爲白齊〈예경〉’, ‘供爲白制〈광수〉’. 立는 극존대의 조동사 只賜에 이어져 존자에 대하여 願望을 나타내는 명령법이다. ‘十方叱 仏體 閟遣只賜立(시방의 부처님이 꼭 알아 주시옵소서)〈참회〉’. 鷄林類事에는 ‘來曰 烏囉(來는 “오라”라고 한다.)’와 같이 평대의 명령법 어미 ‘囉’가 보이고 존대의 명령법 형태로 ‘少時/쇼셔, 受勢/쇼셔’가 보인다. 영탄법의 也와 耶는 유사향가와 같다. ‘灯炷隱 須弥也〈광수〉’, ‘沙毛叱等耶〈예경〉’. 良羅와 兮는 화자가 스스로 탄식하는 것이다. ‘脚烏伊 四是良羅〈처용〉’. ‘白乎隱 乃兮(사뢰는 것이로다)〈칭찬〉’. 兮는 유사의 ‘下是’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舌은 주관적인 탄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道尸 迷反 郡良 哀呂舌〈청불〉’.

이상 유사에서는 '齊, 除'가 설명법으로 쓰이나 균여에서는 청유법으로 쓰인 점. 유사에서는 의문법의 표현이 애매하지만 균여에서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점, 유사의 영탄법의 '下, 下是'와 인용법(확신법)의 '古'가 쓰여 균여전과 다른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균여에 이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근고어에 이 문법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2.2.2. 接續語尾

行動의 前提:	良/아, 惡/아, 也/야(이·아), 可/ㄱ·아	良/아, 可/ㄱ·아
手段:	惡只/악	良只, 惡只/악, 良尒/아금
羅列:	古/고, 遣/고	古, 遣/고, 昆/고·ㄴ
手段:	古只/곡, 遣只/곡, 古音/곰	
持續:	音/ㅁ	
原因:	米/믜	米/믜
同時竝列:	旀/며	旀/며
逆接:	乃/(이)나	乃, 奈/나
理由:	羅/라	
讓步1:		而也/마리여
讓步2:		馬於隱/말언
轉換:		乙/ㄹ
限度:		色只, 所只/도록
中斷:		如可/다가

〈遣事 鄕歌〉 선행절의 동작을 전제로 하여 후행절에 이어주는 접속어미로는 良가 주로 쓰이고 惡는 드물게 쓰였다. '修叱如良 來如〈풍요〉', '浮良 落尸〈제망매〉'. '一等肹 除惡支〈도천수〉'. 사역형 보조어간

‘이’와 결합된 也와 ㄱ어간말음과 결합된 可에서도 어미 ‘아’가 확인된다. ‘遣也 置遣〈원왕생〉’, ‘折叱可〈헌화〉’. 惡只은 전제의 ‘惡/아’에 그 동작을 수단으로 함을 나타내는 ‘只/ㄱ’이 첨가된 것이다. ‘使以惡只〈도솔〉’. 순차적인 나열을 나타내는 접속어미는 古와 遣가 있고 이 접속어미에 그 동작을 수단으로 함을 나타내는 只이 연결된 遣只이 있다. ‘枝良 出古〈제망매〉’, ‘放敎遣〈헌화〉’, ‘賜以古只〈도천수〉’, ‘捨遣只〈안민〉’. ‘古音/곰’은 ㄱ대신 ㅁ을 추가함으로써 수단과 동시에 지속을 나타낸다. ‘腦叱古音 多可支〈원왕생〉’. 동작의 지속이나 계속을 나타내는 접속어미는 音이다. ‘就音 墜支 行齊〈죽지랑〉’, ‘執音 乎 手〈헌화〉’. 米는 이 어미에 첨사 ‘애’가 연결되어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呵嗚 爾處米(呵嗚 그치매)〈기파랑〉’, ‘此矣 有阿米〈제망매〉’. 동시병렬의 접속어미 旀는 이두에도 두루 쓰였고 현대어에까지 이어진다. ‘膝肹 古召旀〈도천수〉’. 역접의 접속어미 乃와 이유의 접속어미 羅는 한 예씩 보인다. ‘皃史沙叱 望阿乃〈원가〉’. ‘二 于萬隱 吾羅(그 둘이 없는 나이라)〈도천수〉’.

〈均如 鄕歌〉 접속어미 良는 유사 향가와 같다. ‘九世 盡良〈예경〉’, ‘伊留叱 餘音良〈총결〉’. 可는 선행동사의 말음 ‘ㄱ’과 ‘아’가 결합된 것이다. ‘擬可 行等〈수희〉’. 행동의 전제를 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어미 ‘악’은 유사향가와 같다. ‘進良只〈청전〉’, ‘潤良只〈항순〉’. ‘아금’ 系列의 어미는 균여에만 나타나지만 중고어에 없다고 하긴 어렵다. ‘鳴良尒〈청불〉’. 나열의 古, 遣는 서동요에만 나타난다. ‘嫁良 置古〈서동〉’, ‘抱遣 去如〈서동〉’. 동시병렬의 旀는 유사 향가와 같다. ‘毛叱色只 爲旀〈광수〉’. 역접의 乃, 奈도 유사향가와 같다. ‘化緣 盡 動賜隱乃〈청불〉’, ‘法供沙叱 多奈〈광수〉’. 이유의 米도 유사향가와 같다. ‘煎將來 出米〈청전〉’. 양보1의 ‘而也’는 ‘而/마리’에 평서법과 접속법에 두루 쓰이는 ‘也/여’가 연결된 것이고 양보2의 ‘馬於隱’은 주제의 보조사 ‘隱/ㄴ’이 연결된 것이다. ‘日 置仁伊而也〈총결〉’, ‘吾下是如馬於隱〈처용〉’. 이 양보2

의 접속어미는 유사향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중고시대의 이두의 '而'에서 그 용법을 볼 수 있다. 전환의 乙은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됨을 나타낸다. '丘物叱丘物叱 爲乙 吾置 同生同死(구물구물 하거늘 나두 同生同死)〈항순〉'. 한도의 '色只, 所只/도록'은 구결에서는 ㅌㅅ(巴只)이 쓰였다. 이는 중세어나 현대어의 '-도록'과 같은데 '色只, 所只'이 '도록, ᄃᆞ록'으로 읽히는 이유는 알 수 없다. '法界 毛叱色只 爲旀〈광수〉', '衆生 毛叱所只〈수희〉'. 중단의 '如可'는 처용가에 1 예가 나타나는데 현대어의 '-다가'의 기능과 같다. '夜入伊 遊行如可〈처용〉'. 이유의 접속어미 羅는 균여향가에 보이지 않으나 석독구결에 나타나므로 자료의 제약에 말미암은 것이다.

접속어미 가운데 균여 향가에만 나타나는 형태가 있으나 이는 자료의 제약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고 시대적인 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처용가의 '如可'는 삼국유사의 시대인 13세기 후반에서 멀지 않은 시대에 발달한 형태로 보인다. 석독구결에서도 나타나지 않다가 고려시대의 순독구결에서부터 나타나는 어미이다.

2.2.3. 動名詞語尾

旣定:	隱/(은)ㄴ	隱/ㄴ, 焉/, 根/고·ㄴ, 斤/ㄱ·ㄴ, 反/ㅂ·ㄴ
	乎/혼	昆/고·ㄴ, 孫/소·ㄴ, 仁/이·ㄴ, 寸/ㅈ·은
未定이나 眞理的 事實:	尸/(으)ㄹ, 乎/올	尸/ㄹ

〈遺事 鄕歌〉 隱은 기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동명사어미로 여러 기능을 보여 준다. 체언을 수식하는 예가 가장 많다. '去隱 春〈죽지랑〉'. 접속어미 '-니'에 해당하는 기능도 보여 준다. '白乎隱 花良 汝隱(사뢰니

꽃아 너는)〈도솔〉'. 명사문 부정사 '安支/안디'의 피부정사가 되기도 한다. '浮去隱 安支下(떠 간 것이 아닌가)〈기파랑〉', '安支 尙宅 都乎隱以多(尙宅을 도합한 것이 아닙니다)〈우적〉'. '毛冬 乎丁(몯 하는도다)〈제망매〉'의 乎는 '혼'으로 읽히는데 -ㄴ은 丁(의존명사 ᄃᆞ + 종결어미 여)의 ᄃᆞ를 수식한 것이다. '汝於 多支 行齊 敎因隱〈원가〉'에서 '因/인'의 -ㄴ도 동명사어미이다.

진리적 사실이나 미정의 사실을 나타내는 尸 동명사어미도 여러 기능으로 쓰이는데 체언 수식에 쓰인 예가 가장 많다. '用屋尸 慈悲也〈도천수〉', '愛賜尸 母史也〈안민〉'. '愛尸 知古如(사랑함을 알지로다)〈안민〉'와 같은 용례는 ㄹ동명사가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것인데 그에 이어질 대격조사는 생략되었다. '彌陀刹良 逢乎 吾(彌陀刹에서 만날 나)〈제망매〉'에서는 乎가 '올'로 읽혀 ㄹ동명사형을 보여 주는 예이다.

〈均如 鄕歌〉 기정사실을 나타내는 동명사어미는 隱과 焉이 수의적으로 교체되어 쓰였는데 隱의 빈도가 높다. 이 어미는 어간이나 보조어간의 말음과 결합된 여러 차자가 쓰였다. '見根〈수희〉, 明斤〈청전〉, 迷反〈청불〉, 無叱昆〈수희〉, 修孫〈보개〉, 惡寸〈보개〉, 滿賜仁〈광수〉'. 진리적 사실을 나타내는 동명사어미는 尸이 쓰였다. '不冬 喜好尸 置乎理叱過〈수희〉', '向屋賜尸 朋知良〈청불〉', '命乙 施好尸 歲史中置〈상수〉', '闕尸也〈청불〉'.

2.3. 補助語幹

전통문법에서 동사의 어간에 이어져 새로운 어간을 형성하는 형태를 보조어간이라 하여 왔다. 근래에 이를 先語末語尾라고 하는데, 고대어에서 이 형태는 어말에도 쓰여 선어말이라는 명칭에 맞지 않는다. 선어말어미란 용어도 膠着語인 한국어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통문법에서 보조어간이라고 하던 형태 가운데 굴절성을 가진

형태를 보조어간으로 보고 굴절성이 없는 피동과 사동의 형태는 접미사로 본다.

尊待法:	賜/ᄉᆞ, 史/ᄉᆞ	賜/ᄉᆞ
意圖法:	烏/오, 乎/오, 屋/오	乎/오, 屋/오
確認法1:		去/거
確認法2:	阿/아, 於/여, 良/아, 邪/야	於/어, 良/아, 焉/어·ㄴ, 下/하
確信法:	古/고, 遣/고	遣/고, 遣只/곡
應當法:	音叱/ㅁㅅ	音叱/ㅁㅅ
眞理·推測:	里/리, 理/리	理/리
過去時制:	如/더, 頓/더·ㄴ	如/더
現在時制:	奴/노	飛/ᄂᆞ
尊待·確認:	立/셔	
感歎法:	省/소	叱/ㅅ, 孫/ㅅ·온
將次, 意向:	將來/려	將來/려

〈遣事 鄕歌〉 존대법의 보조어간으로는 賜가 널리 쓰였는데 史가 쓰인 예도 있다. '好支賜烏隱〈죽지랑〉', '慙肹伊賜等〈헌화〉', '誓音 深史隱〈원왕생〉'. 의도법에는 烏, 乎, 屋가 널리 쓰였으나 屋의 쓰임은 두 예뿐이다. '游烏隱 城叱〈혜성〉', '行乎尸〈죽지랑〉', '白屋尸〈도천수〉'. 이 '오/우'의 기능을 '話者의 心理的 近接'을 나타내는 서법이라는 견해가 있다.[7] '의도법'이란 용어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확인법의 보조어간으로 阿, 良, 於, 邪가 쓰였으나 去는 나타나지 않는다. '此矣 有阿米〈제망매〉', '治良羅〈안민〉', '去於丁〈안민〉', '數於將來叱〈혜성〉', '露曉邪隱〈기파랑〉'. '爾處米/그처믜〈기파랑〉'에서도 보조어간 '어'

7) 河野六郎外 共編(1996), 言語學大辭典 第6卷, 術語編, 三省堂 發行: '話者의 心理的 距離'(psychological distance of the speaker) 항목.

를 볼 수 있다. 화자가 '확실하게 믿거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을 나타내는 확신법의 보조어간으로 古와 遣가 쓰였다. '愛尸 知古如(사랑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안민〉', '白遣賜立(꼭 사뢰어 주소서)〈원왕생〉'. 音叱는 '응당 그렇게 하여야(되어야) 한다'의 뜻을 나타낸다. '太平恨音叱如(응당 태평할 것이다)〈안민〉'. 音叱에서 叱이 생략된 표기도 있다. '獻乎理音如(꼭 바치겠습니다)〈헌화〉'. 里, 理는 진리적 사실이나 미래를 나타내고 화자가 주어일 때는 의지를 나타낸다. '去賜里遣〈원왕생〉', '獻乎理音如〈헌화〉'. 如는 과거시제의 보조어간이다. '持以支如賜烏隱(지니시었던)〈기파랑〉', 頓은 이 '如/더'에 동명사어미 '(으)ㄴ'이 연결된 것이다. '仰頓隱 面〈원가〉'. 奴는 현재시제를 나타낸다. '去奴隱 處〈제망매〉'. 立는 존대법의 'ᄉᆞ'와 확인법의 '어'가 결합된 것이다. '陪立羅良〈도솔〉'. 省는 감탄법의 叱에서 변한 형태로 보인다. '去遣省如(가고 있도다)〈우적〉'. 將來는 미래시상이나 '하려고 하는'과 같은 의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八切爾 數於將來尸 波衣〈혜성〉'.

〈均如 鄕歌〉 존대법의 賜는 석독구결에서 보면 華嚴經疏卷35 釋讀口訣(11세기말 내지 12세기초)까지는 쓰이다가 華嚴經卷14 釋讀口訣(12세기 전반기)에 와서 'ㅅ/시'로 교체된다. 균여향가에선 賜만이 쓰였다. '滿賜隱〈예경〉', '闕遣 只賜立〈참회〉'. 의도법은 유사향가와 다름이 없다. '慕呂白乎隱〈예경〉', '拜內乎隱〈예경〉', '向屋賜尸〈청불〉'. 확인법에서는 去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임에 대하여 '아'계열은 화자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 '大海 逸留去耶〈광수〉', '悟內去齊〈보개〉', '吾下於叱古〈처용〉', '四是良羅〈처용〉'. 焉은 보조어간 '어'에 동명사어미가 연결된 것이다. '皆 往焉 世呂〈상수〉'. 또 '不冬 應爲賜下呂(아니 응하시겠는가)〈청불〉'에서는 확인법보조어간으로 下가 쓰였는데 이는 존대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확신법의 遣는 '仏體 闕遣 只賜立〈참회〉'에 쓰였다. 이 '遣/고' 형태는 향가에서는 드물지만 석독구결에서는 '古'로 쓰여 다양한 분포를 보여 준다. '當ㅅ 願ㅁㅏㅅㄱ(반드시 원하는 바

는)〈화엄2,19〉', '大王下 當ハ 知ロハ ㄲ ㅛ〈화소10,18〉'. 응당법의 音叱와 진리나 추측의 理는 유사와 같다. '出隱伊音叱如支〈참회〉', '置乎理叱過〈수희〉'. 현재시제의 飛는 동명사어미 -ㄴ에서 파생된 것으로 유사의 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衆生 安爲飛等〈항순〉'. 과거시제의 如는 유사향가와 같다. '懺爲如乎仁〈보개〉'. 감탄법의 叱는 '沙毛叱等耶〈예경〉', '乞白乎叱等耶〈청전〉', '置乎理叱過〈수희〉'와 같이 쓰였다. 孫은 이 叱에 의도법어미와 동명사어미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白孫舌良衣(〈칭찬〉', '吾衣 修叱孫丁〈수희〉'. 의향법의 將來는 유사향가와 같다. '造將來臥乎隱〈참회〉', '煎將來 出米〈청전〉'.

유사향가에 확인법의 去가 보이지 않지만 이는 중고시대의 이두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자료의 제약에 말미암은 것이다. 보조어간은 去를 제외하면 유사 향가와 균여향가에서 차이가 없다.

2.4. 接尾辭

名詞派生:		音/(으)ㅁ	期/ㄱ · 의
使動詞派生:		以/이	伊/이
副詞派生:	오系:	于/오,우, 乎/오	好/ㅎ · 오
	이系:		伊/이, 以/이, 只/ㄱ · 이
	ㅅ系:	叱/ㅅ	叱ㅅ
複數:			等/ᄃᆞᆯ, 冬/ᄃᆞᆯ

〈遺事 鄕歌〉 명사파생 접미사 音은 중세어에 이어지는 것이다. '誓音深史隱(다짐이 깊으신)〈원왕생〉', '岳音(오름)〈혜성〉'. '心音矣 命叱 使以惡只〈도솔〉'의 以는 '使/브리'의 말음첨기로 보이지만 이 '以/이'가 이 시대에는 사동접미사의 기능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접미사 于와 乎가 쓰인 파생부사는 모두 논항을 갖는 점에서 중세어와 다르다. '白

雲音 逐于〈기파랑〉', '兩 手 集刀/몯오 花乎/곶오 白良〈원왕생〉', '過乎好尸〈우적〉'. ㅅ계는 '心音矣 命叱 使以惡只〈도솔〉'의 叱을 접미사로 볼 수 있다. 이는 대격으로도 해석되지만 본래는 부사파생의 기능을 가졌던 것이다.

〈均如 鄕歌〉 명사 파생의 접미사로는 期가 있다. '明期〈처용가〉'. 사동의 접미사 '伊'는 '願海伊過/ᄒᆞ이과〈총결〉'에서 볼 수 있는데 '海'의 해독에서 이견이 있다. 부사파생 접미사에는 '오'계와 '이'계가 쓰였다. '逐好支/좇호(좇오)디〈상수〉'의 오계와 '夜 入伊〈처용〉', '深以〈청전〉', '密只〈서동〉'의 '이'계가 그것이다. 중세 이후에는 쓰이지 않은 부사파생접사 叱/ㅅ이 있다. '仏体 爲尸 如 敬叱 好叱等耶〈항순〉', '然叱 爲賜隱〈상수〉'. 이 叱은 중세어의 '퍼러ᄒᆞ다'의 '-어ᄒᆞ-'와 같이 심리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복수를 나타내는 데는 等과 冬이 쓰였다. '善陵等沙〈수희〉', '今日 部伊冬衣(오늘 部衆들의)〈칭찬〉'. 等자는 이 복수 접미사의 訓 ᄃᆞᆯ에서 차용되어 의존명사 ᄃᆞ를 표기하는 훈가자로 널리 쓰였다. 이 복수의 等은 신라시대의 이두에 쓰인 것으로 보아 중고어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유사향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유사향가와 균여향가의 접미사들 사이에 빈 칸이 보이지만 이것이 언어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료의 제약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2.5. 助動詞

중고한국어의 조동사는 어미의 매개 없이 동사의 어간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包括;	爲/ᄒᆞ, 恨/ᄒᆞᆫ(ᄒᆞ · ㄴ), 乎/호, 好/호(ᄒᆞ · 오)	爲/ᄒᆞ, 好/호

合當法(謙讓);	內/아	內/아, 良/아
極尊待;	敎/기ᄉᆞ	只賜/기ᄉᆞ
如實法;	支(攴)/디, 多支/다디, 如支/다디	支/디. 如支/다디
使動法;		海/히
謙讓法;		白/숣
完了存置;	置/두	置/두

〈遺事 鄕歌〉 '爲/ᄒᆞ'는 동작이나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恨은 'ᄒᆞ'의 ㄴ동명사형이고 乎와 好는 'ᄒᆞ'에 의도법어미 '오'가 연결된 것이다. '民隱 如 爲內尸 等焉/ᄒᆞ알ᄃᆞᆫ(前出)〈안민〉'. '狂尸 恨/ᄒᆞᆫ〈안민〉'. '毛冬 乎丁〈제망〉', '執音 乎 手/잡음 혼 손〈헌화〉', '過乎 好尸/홀 曰沙也〈우적〉'. 합당법의 조동사 內는 상급자(尊者)나 존귀한 사물에 대한 행위를 '(행위자가) 합당하다고 생각함'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이 기능이 발전하여 겸양법도 겸하게 되었다. 본동사 '內/아'는 '어질다', '착하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다'의 뜻을 갖는다. '爲內尸等焉/ᄒᆞ알 ᄃᆞᆫ〈안민〉', '吾隱 去內如/가아다(가옵니다)〈제망매〉'. 敎는 극존대의 조동사인데 이는 동사 '只/기'에 보조어간 '賜/ᄉᆞ'가 연결되어 '기ᄉᆞ(〉기시)'로 읽힌다. 이것이 하나의 조동사로 굳어진 것으로 본다. '敎/기ᄉᆞ'는 존자가 내리는 명령이나 敎示의 뜻에서 발달한 존대표현이므로 賜보다는 관료적인 엄격함이 들어 있는 극존대어이다. '放敎遣(놓게 하시고)〈헌화〉', '行齊 敎因隱〈원가〉'. 支/攴는 '똑 같다', '틀림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여실법의 조동사 ᄃᆞ에 부사파생의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디'로 축약된 것이다. 파생부사이지만 동사에서 파생되었고 논항을 가지므로 여기에 넣는다. 유사향가에 여러 용례가 있다. '持以攴如賜烏隱(前出)〈기파랑〉', '一等肹 除惡支〈도천수〉', '物叱 好支〈원가〉'. 多支·如支는 '똑같다'의 뜻을 가진 多, 如와 支가 첩용된 것으로 여실함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如支는 종결어미일 경우도 있다. '君如 臣多支 民隱 如 爲內尸 等焉〈안민〉'. '行尸 浪阿叱 沙矣以支 如支〈원가〉'. 완료존치의 置는 '此 身 遺也 置遣〈원왕생〉'에서 볼 수 있다.

〈均如 鄕歌〉 포괄의 조동사 爲의 쓰임은 유사향가와 다름이 없다. '礼爲白齊〈예경〉', '安爲飛等〈항순〉', '施好尸〈상수〉'. 합당법에서는 內 이외에 良가 등장한 것이 유사향가와 다르다. 차자만 다를 뿐 음과 기능은 같다. '拜內乎隱〈예경〉', '悟內去齊〈보개〉', '仏前燈乙 直体良焉多衣〈광수〉'. 극존대의 敎는 나타나지 않고 只賜가 나타난다. '闕遣 只賜立〈참회〉'. 동사 '只/기'는 유사향가에 '毛達 只將來呑隱〈우적〉'의 용례가 있고 석독구결에도 용례들이 있다. '遣 只賜/고 기사'의 예도 석독구결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사동의 '海/히'는 '願 海伊過〈총결〉'에 海伊로 쓰인 것이다. 음가자 '海/히'는 용례가 드문데 향약구급방에서 향명의 표기에 쓰인 예가 있다. 겸양법의 조동사 白은 860년대의 자료인 〈동해 시 삼화사불〉에 처음 나타나 內의 겸양법 기능을 계승하기 시작하였다. '成白 伯士 釋氏乘炬〈삼화사불〉'. 균여 향가에 많은 用例가 나타나 10세기에는 보편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慕呂白乎隱〈예경〉', '對爲白惡只〈칭찬〉', '乞白乎叱等耶〈항순〉'. 여실법의 支와 如支는 다음과 같이 한 예씩 쓰였다. '卜以支 乃遣只〈참회〉', '出隱伊音叱如支〈참회〉'. 이밖에 支를 友로 오각한 것이 둘 있다. '止以友 白乎等耶〈청불〉, 逐好友 伊音叱多〈상수〉'의 友는 支의 오각이다. 완료존치의 置는 '嫁良 置古〈처용〉'의 예가 있을 뿐이지만 이 시대의 이두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형태이다.

조동사에서 유사향가와 균여향가의 차이점은 겸양의 조동사 白에 분명히 나타난다. 겸양을 겸한 합당법의 內는 두 향가에서 일치하나 균여향가에 '良/아'가 새로 등장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균여향가에서 支를 友로 오각한 것은 균여전이 간행될 시기에는 支의 기능이 쇠퇴하였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사동법의 조동사 '海/ᄒᆞ이'는 유사향가

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는 자료의 제약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2.7. 準文法形態

중고한국어에는 실사와 문법형태의 중간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들이 있다. 이들은 실사가 문법화된 것인데 이를 준문법형태라 부르기로 한다.

如實法;		等/ᄃᆞ, 冬/ᄃᆞ, 知/디	等/ᄃᆞ, 冬/ᄃᆞ
過越;		念丁/넘뎌	
順序;		第/뎨	
指示(動詞);		只/기	
所有物;			下/하
依存名詞;	事物:		所/바, 事/일
	人稱:		伊/이
	其他:		乃/나

〈遣事 鄕歌〉 여실법의 의존명사 等는 폭넓게 쓰였다. ‘爲內尸 等焉〈안민〉’, ‘賜以古只 內乎叱 等邪〈도천수〉’. 이 等의 이표기로 ‘冬/ᄃᆞ’가 있다. ‘改衣賜乎隱 冬矣也〈원가〉’. ‘知/디’는 이 ᄃᆞ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것이다. ‘爲賜尸 知〈안민〉’. 보조사와 유사하게 쓰이는 ‘念丁/넘뎌’가 있다. ‘西方念丁 去賜里遣(西方을 넘어서 가실 것입니까)〈원왕생〉’. ‘차례’의 뜻에서 ‘다음’의 뜻으로 전용된 한자어 第가 있다. ‘世理 都之叱 逸烏隱 第也(누리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이로다)〈원가〉’. 본동사로 쓰인 ‘只/기’가 있다. 敎의 뜻과 관련이 있는 ‘지시하다’의 뜻이 아닌가 한다. ‘皃史 毛達 只將來呑隱〈우적〉’.

〈均如 鄕歌〉 여실법의 의존명사는 유사향가에서와 같이 等/ᄃᆞ, 冬/

ᄃᆞ가 쓰였다. ‘白乎等耶〈청불〉’, ‘盡尸等隱〈총결〉’. ‘部伊冬衣〈칭찬〉’. 소유의 뜻을 나타내는 下는 현대어에까지 이어지는데 처용가에 나타난다. ‘吾下於叱古〈처용〉’, ‘誰支下焉古〈처용〉’. 의존명사 ‘所’와 ‘事’는 ‘向乎仁 所留〈총결〉’, ‘然叱 爲 事 置耶〈보개〉’의 용례가 있다. 이들은 ‘事物’을 가리키는 것이다. ‘得賜 伊 馬落〈수희〉’의 ‘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毛等 盡良 白乎隱 乃兮〈칭찬〉’의 ‘乃’는 동명사어미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의존명사임이 분명하나 그 뜻은 좀 더 고구할 과제이다.

과월의 念丁은 균여향가에는 쓰이지 않았지만 고려시대의 이두에 나타난다. 유사향가에 지시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只/기’는 균여향가에서는 극존대의 只賜가 있어 균여의 시대에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균여향가에 伊의 쓰임이 특이하여 유사향가와 다른데 그 기능이 밝혀지지 않아 앞으로 고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2.8. 否定法

〈遺事 鄕歌〉 명사문부정법과 동사문부정법은 향가의 문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不喩/안디와 安支/안디는 명사문의 부정사이다. ‘不喩 慙肹伊賜 等〈헌화〉’에서는 不喩가 ㄴ동명사 ‘慙肹伊賜/붓그리ᄉᆞᆫ’을 부정하였다. ‘浮去隱 安支下/안디하〈기파랑〉’에서는 安支가 ㄴ동명사 ‘浮去隱/ᄠᅳ간’을 부정하고 있다. 不冬/안ᄃᆞᆯ은 동사문 부정사이다. ‘秋察尸 不冬 爾屋支 墜米(가을이 아니 그치어 추락하매)〈원가〉’에서 不冬은 동사 ‘爾屋支 墜’를 부정한 것이다. ‘毛冬/모ᄃᆞᆯ’은 能力否定辭로 동사문 부정법에 쓰였다. ‘毛冬 乃乎尸〈기파랑〉’에서 동사 乃乎尸을 부정하고 있다.

〈均如 鄕歌〉에선 동사문 부정법만이 나타난다. ‘不冬 喜好尸〈수희〉’. 능력부정사 ‘毛冬(等)/모ᄃᆞᆯ’이 쓰였다. ‘毛冬 長乙隱〈청전〉’. ‘毛等 盡良

白乎隱 乃兮〈칭찬〉'.

균여향가에서 '間 毛冬留 讚伊白制〈칭찬〉', '際 毛冬留 願海伊過〈총결〉'의 毛冬留가 명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정법이다.

3. 結語

유사향가와 균여향가의 문법적인 차이는 문법형태의 유무를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기능의 차이까지 논의하기에는 자료의 양이 너무 부족하다. 두 향가의 문법을 비교하는 것은 유사향가의 중고어 문법과 균여향가의 근고어 문법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향가의 형태가 균여향가에 없다고 하여 중고어에 있던 문법이 근고어에 없다고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 역도 같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그 차이를 찾아 보기로 한다.

格助詞에서 주격조사는 유사에 '이'가 쓰였는데 균여에서는 '이'와 더불어 '익'이 쓰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익'은 문어적인 성격을 띠는 것인데 시가에 쓰였다는 것은 아마도 문어적인 古雅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조격조사에서 유사의 以에 대하여 균여에 乙留가 나타나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열거격조사는 유사에만 나타나고 균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는 자료의 제약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보조사에서 균여에만 每如, 馬洛(落)이 나타난다. 이는 '마다'가 부사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면 근고어에서 새로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균할의 '爾/금, 尒/금'은 유사에만 나타나지만 고려시대의 吏讀나 口訣資料로 보아 자료의 제약에 말미암은 것이다.

終結語尾에서는 유사의 평서법의 '齊/졔'가 균여에서는 청유법으로 쓰이는 점이다. 이는 어미 齊의 특성에 말미암은 것으로 시대적인 차이

라고 하긴 어렵다. 의문법에서는 유사에서는 판정의문과 설명의문의 차이를 찾기가 힘든데 균여에서는 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接續語尾에서는 유사의 지속형 音/ㅁ이 균여에 나타나지 않으나 이 역시 자료의 제약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유사에 나타나지 않는 형태가 균여에 나타나는 것으로 양보의 '而也/마리여', '馬於隱/말언'이 있으나 이는 신라시대의 이두에 나타나므로 자료의 제약이라 하겠다. 전환의 '乙/ㄹ'과 한도의 '色只, 所只/도록'은 중고어에 없었다고 단언하기가 주저된다. 그러나 중단의 '如可/다가'는 근고 시대의 이두와 구결에 나타나지 않는 신형이다. 전기 중세어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動名詞語尾는 유사와 균여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補助語幹에서 확인법의 '去/거'는 유사에는 보이지 않으나 신라시대의 이두에 쓰였으므로 이는 자료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그 밖의 형태들은 유사와 균여에 차이가 없다.

조동사에서는 유사에서 '內/아'로만 표현되던 겸양법이 균여에서는 '白/숣'이 새로 등장하여 자주 쓰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것이다. 사동의 '海/ᄒᆞ이'는 해독상의 이견이 있지만 이 형태의 조동사가 중고어에 없었다고 하긴 어렵다.

準文法形態의 念丁, 第, 只(동사)는 유사에만 나타나지만 이들은 근고시대의 이두와 석독구결에 쓰인 형태들이다. 균여에만 나타나는 下, 所, 伊, 乃는 유사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중고어에 없었다고 하기가 어렵다. 事는 유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두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쓰여 온 것이다.

否定法에서는 균여향가에 名詞의 否定에 毛冬留가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지만 이것이 균여향가만의 특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고구할 과제이다.

이상 유사와 균여의 문법을 비교함으로써 향가의 문법을 새로이 기술하고 그 차이를 지적했으나 이들이 중고어와 근고어의 차이나 경주

방언과 중부방언의 차이를 보여 주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 형태는 중요한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每如, 白, 如可와 支의 오각이 그것이다.

參考文獻

金永萬(1997),「석독구결 '皆ㅊ', '悉ㅈ'와 고려향찰 '頓部ㅊ', '盡ㅈ'의 비교 고찰」,『口訣硏究』2, 口訣學會, 1-25

金完鎭(1980),『鄕歌解讀法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

김완진(2000),『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지오(2010),「懺悔業障歌의 國語學的 解讀」,『口訣硏究』24, 口訣學會, 61-96.

南豊鉉(2000),『吏讀硏究』, 太學社.

南豊鉉(2009),『古代韓國語硏究』, 시간의 물레.

南豊鉉(2010),「獻花歌의 解讀」,『口訣硏究』24, 口訣學會, 5-34.

南豊鉉(2011a),「古代韓國語의 謙讓法 助動詞 '白/숣'과 '內/아'의 發達」,『口訣硏究』26, 口訣學會, 131-166.

南豊鉉(2011b),「中古韓國語의 文法 槪觀」,『口訣硏究』27, 口訣學會, 5-25.

박진호(2008),「鄕歌解讀과 國語文法史」,『國語學』51, 國語學會, 313-338.

徐在克(1975),『新羅 鄕歌의 語彙 硏究』, 啓明大學 韓國學硏究所.

梁柱東(1965),『增訂 古歌硏究』, 一潮閣.

李基文(1972),『國語史槪說』, 塔出版社.

鄭在永(2004),「鷄林類事의 高麗方言에 나타난 文法形態에 대한 硏究」,『口訣硏究』12, 口訣學會, 99-132.

황선엽(2008),「三國遺事와 均如傳의 鄕札 表記字 비교」,『國語學』51, 國語學會, 279-311.

황선엽(2010),「향가의 연결어미 '-아' 표기에 대하여」,『口訣硏究』25, 口訣學會, 83-105.

河野六郎外共編著(1996),『言語學大辭典第6卷[術語編]』, 三省堂.

[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9-3 양지원빌딩 5층]
E-mail: namph@empal.com
접수일자: 2011. 12. 20
심사일자: 2012. 1. 25
게재결정: 2012. 1. 31

『三國遺事』の鄕歌と『均如傳』鄕歌の文法比較

南豊鉉

『三国遺事』の鄕歌は中古韓国語の資料であり『均如傳』の鄕歌は近古韓国語の資料である。前者は慶州地域で書かれたものであり、後者は中部地域の出身者によって書かれたものである。これらの二つの文獻の鄕歌がこのような時代的・方言的差異を見せてくれるかについては疑問があった。本稿ではこうした疑問点に留意し、二つの文献の鄕歌に現れる文法形態を対象に対照・比較を行った。すなわち、文法形態を助詞,語尾,補助語幹,接尾辭,助動詞,準文法形態,否定法等に分け各形態を機能別に分類した後、その例文を提示して対照した。これによって鄕歌の文法が新しく確認されたとみ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二つの文献は量的に非常に貧弱なものであるため、文法の時代的・方言的な差が明らかに現れたとは言いがたい。ただし'毎個'の意味を表す補助詞'毎如/mata'と謙譲法の'白/sʊrp'は『均如傳』の鄕歌にのみ現れ、近古韓国語の特徴を見せてくれるものと判断される。そして'転換'の接続語尾'如可/taga'は處容歌に現れるが、これは中世韓國語の文法を見せてくれるものである。また『三国遺事』と『均如傳』では'支/ti'が'友'と誤刻されており、これらの文献が板刻された時期には如實法の'支'がその機能を失っていたことを見せてくれる。

キーワード: 時代的・方言的 差異, 文法形態の機能別分類・對照, 鄕歌文法の新しい確認。毎如/mata, 白/sʊrp, 如可/taka, 支/tiの誤刻.